

자치경찰제 초석 다지고 지역맞춤형 시책 발굴

2021년 5월 출범한 '제1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3년 임기를 마치고 9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8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했다. 지난 3년간 총 6차례 회의를 열어 22건의 자치경찰사무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80여건의 건의·제안 사항을 처리했다. 전국 최초로 청년서포터즈를 발족해 젊은 층이 치안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빚고을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교통 분야 1호 시책으로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 교통관리 종합대책'을 발굴·추진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빚고을교통사망사고대책팀'을 구성하고 교통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진단을 실시, 원인별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물도 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어린이보호구역·지하철공사 교통대책 등 232개 안전 처리 전국 최초 청년서포터즈·자전거순찰대 등 시민 참여 유도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다.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안 내관, LED 벽화, 방범 시설물을 중점 설치했다.

특히 방범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대상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은 치안행정과 복지행정 간 협업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영상 및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약자 보호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11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회약자(범죄피해자 등)에게 민간자원을 활용한 통합 지원 체계 시스템인 '희망티움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상담·니움·희망·사례관리 등 4개 분과에 68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스트킹 재범 평가 도구'를 개발, 스트킹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마련했다.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학대·폭력 예방 교육'을 펼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시민 밀착형 정책을 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출범할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행락철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점검 광주시·자치구·전기안전공사 합동

광주시는 8일 "행락철을 맞아 공원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락철을 맞아 야외 활동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공중화장실 내 전기 사용 장치 등을 사전 점검해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4월22-26일 공중화장실 표본 10곳에 대해 실시한 데 이어,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자치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장실 내 분전반 절연 상태, 누전차단기 동작 상태, 시설 내 콘센트 파손 여부 등이다. /박성강 기자



효(孝)드림 나눔 캠페인 8일 광주 북구 운암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효(孝)드림 나눔 캠페인 '찾아가는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위해 과일과 밀반찬 등을 포장하고 있다. 운암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5월 생일을 맞은 3명의 독거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생일상을 차려드렸다. <광주북구 제공>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전남도, 관계기관 합동 육·해상 동시 실시

전남도는 8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선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의 위판장에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민간정원 발굴 7개소 선정...도, 31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민간에서 만들고 가꾼 예쁜 정원을 찾아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자원을 민간정원으로 발굴하기 위한 '2024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 5회 차를 맞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개인 정원과 카페 등 생활권 정원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그동안 정원을 만들고 가꾼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정원 소재지 시·군 산림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정원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1개소), 최우수상(2개소), 우수상(4개소) 등 총 7개소의 예쁜정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는 정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원 디자인·심미성 ▲타 정원과 차별성 ▲사공 품질·완성도 ▲관리 상태 ▲지역민과의 공유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당선된 정원에

는 전남지사 상장과 예쁜정원 현판을 수여해 그동안 정원을 만들고 가꾼 정원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과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총상금 1천만원 규모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이다.

그동안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당선된 정원 중 ▲순천 화가의정원 산책(2020년) ▲나주 3917마중(2020년) ▲화순 효산리정원(2020년) ▲해남 문가든(2021년) ▲보성 꿈꾸는 숲 선유원(2021년) ▲골망테요리사의 정원(2021년)

▲신안 파인클라우드(2022년) ▲여수 꿈꾸는정원(2022년) ▲화순 솔매음정원(2022년) ▲함평 몽베르(2023년) 등 총 10개소가 민간정원에 등록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정원을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견인하고 있다"며 "개인이 만들고 가꾼 예쁜 정원을 지속적으로 찾아 국민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우수 정원을 등록 유도해 정원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해양수산원, 어린 대하 800만마리 방류

경제성 높아 어업인 소득 기여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8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린 대하 800만마리를 완도·해남·영광·강진 해역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대하는 득량만에 서식하는 성숙한 어미를 선별해 수정란을 생산하고 30일간 정성들여 양상했다.

민·관이 함께 방류한 어린 대하는 먹이가 풍부한 전남 연안에서 성장하는 가을철 특산물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의 자원 조성 방류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하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줄어드는 대하 자원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억4천800만마리를 무상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하는 서·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새우류 중 가장 크고 4월 말경 연안으로 이동해 5-6월 산란하는 1년생 품종이다. 어린 대하는 5-10월 연안에서 성장하고 수온이 내려가는 11-12월 월동을 위해 서해·남해 해역으로 갔다가 이듬해 4월 연안으로 다시 돌아온다.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로 맛이 담백해 인기가 많은 뿐만 아니라 글리신 함량이 높아 단맛이 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갈수록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 해 건강과 원기 회복에 좋다. /김재정 기자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예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명품의 가치를 그대로 누리는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예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튼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TYPE 82A | 84B | 84C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

로얄층 마감임박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1,466세대 대단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호지정

대표 전화 1533-8316